는 정심廷心이고 본래 성은 당올唐兀이다. 순제順帝의 원통元統(1333~1334) 초년에 진사進士로 급제하였고 평소부터 경술經術에 밝아 오경五經을 거의 전주傳注하였고 청양집靑陽集을 저술로 남겼다. 안경安慶을 지키다가 진우량陳友諒의 난에 순국하였다. 진우량은 원나라 면양沔陽 사람으로 어부의 아들이며 본성은 사씨謝氏인데 그 조부가 진씨에게 투탁하여 그 성을 따랐다. 처음에 고을의 작은 아전이다가 순제 때 서수휘徐壽輝가 거병하자 그 장수 예문준倪文俊의 휘하에 들어갔다. 내분이 생긴 틈을 타 예문준을 죽이고 그 군사를 아울러서는 동쪽으로 가 태평太平을 쳐 점거하고 이윽고 서수휘마저 죽이고는 채석기采石磯에서 칭제稱帝를 하여 국호를 한漢이라 하고 연호年號를 대의大義라 하였다. 그리고 장사성張士誠과 협약하여 동서에서 함께 진격키로 모의하고 건강 建康을 기습하였으나 패전하여 강주江州로 돌아갔다. 이때 명明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군사가 승전한 기세를 타고 쳐들어오자 무창武昌으로 도주하여 다시 누선樓船을 다스려 동쪽으로 내려와 파양호鄱陽湖에서 명태조와 싸워 패하면서는 유시流矢를 맞아 죽었다. 그 재위는 4년에 그쳤다.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적병명고박고성賊兵鳴鼓薄孤城 : 적병이 북을 울려 외로운 성 압박할 때
도보휘과노기횡徒步揮戈怒氣橫 : 도보로 창을 휘두르며 노기를 비꼈네
혈전피창공불수血戰被槍功不遂 : 혈전에 창상을 받고도 공은 이루지 못해
자지무계내연생自知無計乃捐生 : 계책 없음 스스로 알고 그 목숨을 던졌네
삼문이함기연분三門已陷起烟氛 : 세 성문 함락되어 불연기 일어나니
의사천인공자분義士千人共自焚 : 의사 천인이 함께 불타 죽었는데
장백충혼금저재壯魄忠魂今底在 : 장한 넋과 충성의 혼이 지금도 그 밑에 있어
일사안경암수운日斜安慶暗愁雲 : 해질녘의 안경에는 구름도 시름겨워 어둡네

195. 보안전충普顔全忠

원元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18년(1358)에 참지정사參知政事 보안불화普顔佛花와 시어사侍御史 이국봉李國鳳에게 조명詔命하여 강남江南을 경략하게 하였다. 이들이 건녕建寧에 이르니 진우량陳友諒이 등극명鄧克明을 보내 와서 침구侵寇케 하였다. 그러자 이국봉이 은둔하여 몰래 떠나니 보안불화가 말하기를 ‘ 내가 제명制命을 받아 여기 왔는데 어디로 떠나가서는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맹세코 이 성과 더불어 존망을 같이할 뿐이로다 ’ 하고는 적을 맞아 64일 동안 싸워 많은 적을 크게 패퇴시켰다.

이듬해에 소환되어서는 산동선위사山東宣慰使에 제수되어 익도益都를 키지게 되었다. 명明나라 군사가 지경을 압도해오니 보안불화가 성을 지키면서 역전하였으나 성이 실함되었다. 이에 평장사平章事 보보保保가 나가 항복했다. 보안불화는 집에 돌아가 그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 제가 충과 효를 다 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우가 있으니 마땅히 끝까지 봉양할 것입니다 ’ 하고 절하여 모친을 작별하고는 관사官舍로 달려와 당상에 좌정하였다. 명군의 주장主將이 평소에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재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이윽고 두 손이 결박을 당하여 주장 앞에 끌려나와서야 보안불화는 ‘ 내가 원조元朝의 진사進士로서 벼슬이 극품極品에 이르렀거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겠는가 ’하고는 끝내 굽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 처 아로진阿魯眞이 아들을 품고 집 뒤의 우물에 투신하였고 그 딸과 첩 및 손녀가 따라 익사하였다. 두 아우의 아내도 각기 어린 자식을 품고 그 비첩婢妾과 함께 관사 남쪽의 우물에 빠져 죽었다.

제목 보안전충普顔全忠은 보안불화가 충성을 온전히 하였다는 뜻이다. 보안불화는 원나라 사람으로 본성이 몽고씨蒙古氏이고 자는 희길希吉이다. 순제의 지정至正 초중에 우방右榜의 진사 제1위로 급제하여 강남경략江南經略으로 나가 전공을 많이 세우고 관직이 지추밀원사 知樞密院事에 이르렀으며 산동행성山東行省의 평장사平章事로 나가 서수휘徐壽煇 · 진우량의 군사를 막아 싸워 공을 세웠는데 명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친승조명무남방親承詔命撫南方 : 몸소 조명을 받아 남방을 진무하면서
감애미구기토강敢愛微軀棄土疆 : 하찮은 몸 하나 아껴 강토를 버릴 것인가
국봉하인잠둔주國鳳何人潛遁走 : 이국봉은 뉘기에 숨어 달아나는가
서장성보공존망誓藏城堡共存亡 : 맹세코 성보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하네
충효성난양득전忠孝誠難兩得全 : 충효는 진실로 두 가지 다 보전키 여려우나
거관효사직당연居官效死職當然 : 관직에 있으면서 죽음으로 소임을 다함 당연한 일
가련처자개투정可憐妻子皆投井 : 가련토다, 처자가 모두 우물에 투신함이여
절의가성만고전節義家聲萬古傳 : 절의의 집안 명성 만고를 전하네

196. 홍의사국弘毅死國

명나라 군사가 원나라 경성京城에 들어오니 대악령大樂令 조홍의趙弘毅가 탄식하며‘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데 내가 지금 힘으로 능히 사직을 구할 수 없으니 다만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할 뿐이로다 ’ 하고는 그 처 해씨解氏와 함께 목을 매 자결하였다. 그 아들 중서中書 관구공菅句恭이 그 처자에게 결별을 고하면서 ‘ 지금 어가御駕는 북으로 피해 달려갔는데 우리 부자가 녹을 먹고서도 척촌尺寸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내가 감히 죽음을 애석해 하랴 ’하였다.

혹자가 만류하면서 ‘ 우리는 관직도 낮은데 어찌 스스로 괴로워하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 하니 관구공이 꾸짖어 ‘ 충의에는 사람마다 각기 제 마음을 다할 뿐이거늘 어찌 관직이 높고 낮음을 묻느냐 ’ 하고 공복公服으로 갈아입고 북향하여 재배를 한 다음 또한 목을 매 자결하였다.

관구공의 여관노女官奴가 나이 열일곱이었는데 주인이 죽는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마침 이웃의 노파가 와서 데리고 나가 피하고자 하니 여관노가 ‘ 나는 시집을 안간 사람인데 피해 나가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 하고는 중당中堂으로 들어가 옷의 띠를 풀어 스스로 목을 맸다.

제목 홍의사국弘毅死國은 조홍의가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뜻이다. 조홍의는 원나라 진주晋州 사람으로 자는 인경仁卿이며 소시부터 배우기를 좋아했으나 집이 가난하고 책이 없으므로 어떤 큰집에 들어가 고용살이를 하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빌어 읽었다. 일찍 임천臨川의 오징吳澄에게 경학經學을 배우고 처음에 한림원翰林院의 서사書寫로 취직하여 뒤에 대악서령大樂署令으로 조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승여분북국조공乘輿奔北國朝空 : 어가가 북으로 달아나 나라의 조정이 비니
역불능부계이궁力不能扶計已窮 : 힘으로 부지 못하고 계책도 다했는데
직여세군동일사直與細君同一死 : 바로 아내와 더불어 한가지로 죽어
구원천재헌고충九原千載獻孤忠 : 구천에서도 천년토록 외로운 충성을 드리네
영자단심관일명令子丹心貫日明 : 아들의 단심 밝은 해도 뚫어
종용자액긍투쟁從容自縊肯偸生 : 조용히 자진하여 구차히 살기를 버리니
일가충효능상감一家忠孝能相感 : 한 집의 충효가 서로 감응하여
소녀유지사역경小女猶知死亦輕 : 작은 노비마저 오히려 죽음이 가벼운 것 알았네

197. 박장견해朴張見害

명明나라 군사가 서울을 핍박하자 원元의 순제順帝는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박새인불화朴塞因不花에게 지키게 했는데 그 거느린 병사가 겨우 수백의 파리한 사졸 뿐이었다. 이에 박새인불화가 탄식하며 좌우에게 말하기를 ‘ 국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다만 이 문과 존망을 같이할 것을 알 뿐이다 ’하였다. 성이 함락되어 붙잡히게 되어서는 그 주장主將을 보고 오직 속히 죽일 것을 청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주장이 그를 병영에 머물러 두고는 회유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않으므로 죽였다.

형부상서刑部尙書 장용張庸은 민병을 거느리고 낙타곡駱駝谷을 수호하면서 종사관從事官 단정段禎을 보내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에게 구원을 청했으나 회답이 없었다. 장용이 홀로 굳게 지키며 막아 싸웠다. 이윽고 무리가 궤멸되었으나 장용은 피해 떠날 의사가 없었다. 이윽고 변방의 백성 이세걸李世傑이 장용을 붙잡아 묶어 가지고 나가 항복하여서는 적의 주장에게 보이니 장용은 굽히지 않고 단정과 함께 살해되었다.

제목 박장견해朴張見害는 박새인불화와 장용이 살해되었다는 뜻이다. 박새인불화는 원나라 숙량합대 肅良合臺 사람으로 자는 덕중德中이고 그 전사한 사적이 원사元史에 올라 있다. 장용張庸은 원나라 온주溫州 사람으로 자는 존중存中이고 태을수太乙數의 점술에 능했으며 형부상서로서 전사한 사적이 원사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명병백만핍경사明兵百萬逼京師 : 명나라 백만대군 서울을 핍박하니
경하원비일목지傾廈元非一木支 : 원래 기우는 큰집을 나무 하나가 지탱 못하거늘
고수순승동패몰固守順承同敗沒 : 순승문 굳게 지켜 한가지로 패해 묻혀
문명종여영명수門名終與令名垂 : 문 이름과 더불어 고운 이름 드리웠네
형부장공수락타刑部張公守駱駝 : 형부상서 장공은 낙타곡 지키면서
관병장궤독난차官兵張潰獨難遮 : 관군이 무너져 홀로 막기 어려움에도
창양력전능완절槍攘力戰能完節 : 창을 휘둘러 힘껏 싸워 충절을 다하니
장지천추경불마壯志千秋耿不磨 : 장한 뜻 천추에 빛나 닳아지지 않는구나

198. 정곽취사丁郭就死

명나라의 대군이 원의 서울에 입성하니 혹자가 조국공趙國公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정호례丁好禮에게 명의 대장大將을 찾아볼 것을 힘써 권했다. 그러자 정호례가 꾸짖기를 ‘ 내가 하찮은 관리에서 지위가 더 올라갈 수 없는 품계에 이르고 작위는 상공上公이 된데다 지금 늙었다. 한스러운 것은 나라에 보답한 것이 없음이요 빚을 진 것은 오직 한번 죽음일 뿐이다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명의 대장이 부르니 정호례는 즐겨 가지 않으려 하여 떼메어져서 제화문濟化門에 이르렀으나 굽히지 않고 항변하다가 죽으니 나이 75세였다.

중서참지정사中書參知政事 곽용郭庸이 또한 들것에 실려 제화문에 이르렀는데 많은 무리가 꾸짖어 대장에게 절을 하라 하자 ‘ 신하에게는 각기 그 주인이 있는 바이니 스스로 내 분수에 따라 죽을 것인데 어찌 절을 할 수가 있겠느냐 ’ 하고 말에 조금도 굽힘이 없으면서 죽었다.

제목 정곽취사丁郭就死는 정호례와 곽용이 주음에 나아갔다는 뜻이다. 정호례는 원나라 여주鑫州 사람으로 자는 경가敬可였다. 곽용은 원나라의 몽고蒙古 사람으로 자는 윤중允中이며 국학생國學生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거듭 벼슬을 옮겨 섬서행대陝西行臺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거쳐 참정중서參政中書에 이르러 국망과 함께 순사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정공수시노쇠옹丁公雖是老衰翁 : 정공이 비록 쇠약한 노옹이나
장절미견허국충壯節彌堅許國忠 : 장한 절개 더욱 굳세어 나라에 충성 다하네
예도성문종불굴舁到城門終不屈 : 떠메어져 성문에 닿아서도 끝내 굽히지 않아
지금문자앙고풍至今聞者仰高風 : 지금까지 듣는 자 높은 풍모 우러르네
곽후충분정무주郭侯忠奮政無壽 : 곽후의 충정분발 정녕 짝이 없었는데
분사하필배국수分死何必拜國讎 : 분수에 죽으면서 하필이면 나라의 원수에 절하랴
제화문전감취륙齊化門前甘就戮 : 제화문 앞에서 달게 살륙을 당하니
수림소슬상함수樹林蕭瑟尙含愁 : 수풀의 임목 소슬바람은 지금도 수심을 머금네